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이야기



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소식지

발행인 : 이영훈 알렉산델 신부

가득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박준우 가브리엘
사직대건성당



지난 2월, 부산을 떠나 서울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서울행이 결정되었고, 저는 당장 서울에서 지낼 방을 구해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부동산에서 방을 구하는 경험이 처음이라 순탄치 않았습니다. 뉴스에서 보던 청년들의 주거난이 저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반지하, 북향, 4평 미만... 친구들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한 자취방의 기준이었습니다. 혼자 살더라도 최소한의 공간이 확보되고, 햇빛이 드는 곳에서 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준에 맞는 방은 보증금이 1000만원, 월세가 50만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당장 보증금 1000만원을 마련할 수 없는 형편에서, 기준은 하나씩 줄여들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렇게 방을 구하는 동안, 고시원에 들어가 살기로 했습니다.

제가 들어간 고시원은 에어컨과 화장실이 방마다 존재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공동화장실인 다른 고시원에 비해서 10만원 비싼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시원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옆방에서 기침하는 소리, 맞은편 방에서 유튜브 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침대와 책상, 옷장을 놓고 남은 공간에는 성인 남성 한 명 누울 수 없었습니다.

고시원을 나와 조금만 걸으면, 높은 아파트가 즐비했습니다. 스마트폰을 켜면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원에 달한다는 기사가 쏟아집니다. 인사청문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여러 채의 주택을 갖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얼마 올랐다는 기사는 많지만, 청년층이 사는 주거환경을 다루는 기사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불행하여라, 빈 터 하나 남지 않을 때까지 집에 집을 더해 가고 밭에 밭을 늘려가는 자들! 너희만 이 땅 한가운데에서 살려 하는구나.”(이사 5,8)

이사야서는 땅과 집을 독차지하려는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청년주택이 건설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동네 주민들은 자신들의 집값이 내려간다고 반대합니다. 햇빛이 드는 작은방을 청년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정책도 실현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땅 한가운데를 독점할 수는 없습니다. 정의로운 주거환경은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 모든 사회구성원이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



✚ 이달의 기도 지향 :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아가는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주여 당신 장막에 묵을 이 누구오리까” (시편 15,1)

김진호 바오로 신부 해운대성당 |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의 집은 어머니이신 성교회이지요. 동시에 세상에 기거하는 실존으로서 저의 집은 한 성당의 사제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행복한 집이지요. 하지만 이 사제관의 크기는 꽤 과분합니다. 그래서 ‘동시대의 청년들, 부부들은 머물 집이 없어 힘들어하는데, 이토록 큰 방에 머무르며 안락하게 살아도 되는 걸까’하는 생각이 종종 듭니다. 지금도 자기 소유의 집 없이 표류하는 많은 이들을 위해 기도드리며 시작하고자 합니다.

8월 초, 수도권을 중심으로 내린 엄청난 양의 비는 뜻밖에 우리 사회가 떠안고 있던 주거 불안정성을 수면 위로 떠 오르게 하였습니다. 반지하에 살던 일가족이 집안으로 들이치는 빗물을 피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삶의 터전이 죽음의 위협에 항시 노출된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반지하라는 기이한 주거 공간으로 내몰린 사람들이 있는 현실은 평범한 주거 공간이 고르지 않게 분배되어 있다는 사실을 매섭게 지적합니다. 2020년 기준 대한민국 일반가구의 자가점유율은 57.9%, 자가보유율은 60.6%이며, 특히 청년가구의 자가점유율 및 자가보유율은 각각 16.1%, 17.3%로 일반가구에 비해 1/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청년 주거정책의 현황과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1, 2pg 참조).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서는 ‘집’이라는 개

념에 있어 가정의 삶터 또는 못자리라는 의미는 사라지고, 사유 재산의 일종, 또는 재산을 축적하는데 도움이 되는 실물 자산의 의미만 남게 된 듯합니다. 또한, 근래에 들어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침체를 부양하기 위해 시행된 정책들, 이를테면 헬리콥터 머니(Helicopter Money) 살포 또는 금리 인하 등이 유동성을 증대시켰고, 자연스레 주택자산 가격 상승이 유도되었습니다. 경기침체로 공간에 쌓인 돈은 많은데 마땅히 구매할 것도 없고 은행 이자로는 성에 안 차니 부동산(과 증권자산 및 코인 등) 투기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현재 우리 사회에서 집은 한낱 투기자산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같은 주택에 대한 인식 변화를 가장 노골적으로 보여주었던 최근의 현상이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샀던 영끌족들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관점에서 볼 때 주거공간은 결코 단순한 경제적 실물자산 또는 투기자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주거공간은 인간의 기본권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집을 마련하는 것은 인간 존엄과 가정의 발전에 매우 중요합니다”(참미받으소서, 152)**. 교회의 사회 교리는 인간의 주거공간이 인간의 기본권을 발전시키는, 곧 공동선을 구축하는 하나의 요소임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공동선의 요구는 역사적 시기의 사회적 조건에 달려 있고, 인간과 인간의 기본

권을 존중하고 온전히 발전시키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이러한 요구는 무엇보다도 평화에 대한 노력, 국가 권력 기구, 건전한 사법 체계, 환경 보호, 모든 이에 대한 기본적인 편의 제공과 같은 것이며, 그 가운데 일부는 음식, 주거, 노동, 교육, 문화와 교통, 기본적인 의료 혜택, 커뮤니케이션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종교 자유의 수호와 같은 인간의 권리들이다”(간추린 사회 교리, 166; 사목 현장, 16 참조). 그러므로 주거 공간을 보장한다는 것은 공동선, 곧 집단이든 구성원 개인이든 자기완성을 더욱 충만하고 더욱 용이하게 추구하도록 하는 사회생활 조건들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한 세대가 하나의 집을 갖지 못하고, 소수의 자산가가 수십, 수백 채의 주택을 보유하는 지금의 현상은 가장 고전적인 정의의 형태인 ‘분배 정의’를 거스르는 일이기도 합니다 (간추린 사회 교리, 201 참조). 공동체는 어떤 인간이나 집단에 정당한 부분을 줄 수 있도록 항상 힘써야 합니다. 국가 또는 사회가 각자에게 필요한 토지, 주택 등이 보장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이러한 현상을 방관하는 것은 그 사회가 애덕의 실천에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지상의 재화는 정의와 사랑에 입각하여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이는 본질적으로 자원의 부당한 축적을 예방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이다.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탐욕은 창조 질서에 위배된다”(간추린 사회 교리, 481)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향후 5년간 27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선언한 정부의 8.16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주택 문

제의 기본 배경이 ‘공급 부족’에 있다는 판단입니다. 수요와 공급 원칙을 바탕으로 할 때 나름대로(?) 명쾌한 해법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헌법에 보장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증진하겠다는 의지의 발로로도 보입니다. 모두가 수도권에 살게 해 주겠다는 약속이지요. 그런데 부산 곳곳에선 이미 수년째 신축 아파트들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습니다. **부산의 인구가 1995년을 정점으로 지금까지 50만 명이 줄었음에도 말입니다. 더불어 미분양 주택이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이걸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택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가격이 형성되지도, 정당한 분배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으며 동시에 우리나라의 일부 지역이 인구를 독점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주택 정책에 있어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헌법에 수록된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할 의무’(대한민국 헌법 제123조 참조)도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



기후위기와 원자력(핵발전소)

이정운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



○ 고리원전 총량적 잠재 리스크 비교

순서	고리	일본 후쿠시마	미국 IP (인디안 포인트)
-호기수	10기	6기	2기
-총발전용량	9.8GWe	4.7GWe	2GWe
-30km내 인구 수(명)	400만	20만	100만
-총발전용량/인구	3.9	0.094	0.2
-후쿠시마 대비	41배	1배	2.1배

<자료: 동국대 원자력 및 에너지공헌부 박종우 교수>

기후변화의 위험

인류가 출현한 이후 지구의 온도는 불과 몇 년 동안 거의 수직상승하고 있다. 1.5도가 오르면 광범위한 위험들이 확산되고 2도가 넘으면 파국적 위험이 닥쳐온다. 급격한 지구적 인구 증가와 GDP의 상승으로 우리나라에서만 연간 1030만 톤이 넘는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한다.

1978년에 가동한 고리1호기는 600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하여 유가파동을 겪으며 에너지안보의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였다. **교황님도 인정하신 “문제들의 해결책을 찾으려고 값진 노력을 기울이는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에게 감사”**하고 원자력 산업을 인정해야하지만 **“냉철하게 세상을 바라보면”** 이것은 **“기업의 이익과 소비주의를 위한 것”**이며 **“지구를 빈곤하고 추하며 제한되고 음울한 것으로 만들고 소비재를 넘쳐나게 한다.”** 원전에서 생산된 값싼 전기는 과잉소비를 부추켜 지금은 오히려 기후위기 촉발과 환경 파괴의 주범이 되고 있다.

기후위기의 해법은 원자력인가?

미국 경제 주간지 블룸버그는 2050년에 64%가 재생에너지, 원자력은 10% 이하로 전망했다. IRENA 2022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까지의 탄소배출 억제 역할은 재생에너지가 25%, 에너지효율 25%이다. 세계 재생에너지 투자는 2050년 65%에 도달하기 위해 2030년까지 매년 1200조 이상 지속가능하게 유지될 전망이다.

그러나 새 정부는 원전 중심 에너지 정책을 수립했다. 2030년 신재생에너지는 30.2%에서 20%로 줄이고 원자력은 23.9%에서 30% 이상으로 올리는 정책을 세웠다. 화석에너지를 줄이지 않고 원자력을 올리기 위해 오히려 재생에너지를 줄이는 것은 세계 에너지시장 흐름에 역행한다.

원전은 안전한가?

원자력의 비용은 직접비용과 외부비용이 있다. 건설단가를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건설비용은 매우 낮다. 외부비용이 작아 안전비용이 낮기 때문이다. 외국에 비해 항공기 충돌, 코어캐처(Core Catcher), 비상발전기 보강 등 안전설비 차이가 많다. 사용후핵연료를 자원으로 취급하여 파이로프로세싱(재처리)을 추진한다고 40년 동안 수조에 취약하게 쌓아놓고 있다. 만약 테러 등으로 고리 2호기 수조 하나만 폭발해도 2000만 명이 피신해야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동해상에 중국과 러시아의 군항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를 침범하는 준 전시국임을 고려하면 수명연장을 추진하는 고리2호기의 테러 또는 항공기 충돌 대책은 필수적이다.

2020년 태풍 마이삭 때는 스위치야드의 차단기 고장으로 고리원전 4기가 동시에 정지되어 다수호기가 비상발전기로 핵연료를 냉각시키는 초유의 비상사태였다. 올진 산불 때도 역시 송전선로 4개 중 3개가 산불로 단선되었다. 가동 원전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다. 원안위원장이 국가방사능방재대책 위원장이지만 민관군을 동원해 대응해야하는 지휘능력은 행정안전부가 보다 유리하므로 행안부장관으로 변경이 필요하다. 교황님은 원전의 안전이 완전히 보장될 때까지 사용 중단을 말씀하신다. 완전한 안전 보장은 사실상 인간이 할 수 없는 신의 영역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교훈

후쿠시마 원전사고처럼 다수호기 부지는 동시사고 위험이 크다. 세계 원전은 한 부지에 단일호기가 29%, 2기가 41%이지만 6기 이상이 있는 6%에 우리나라가 전부 속함에도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경주지진으로 월성원전은 실제 부지설계기준(SDE)을 초과했다고 본다. 문제는 원전중대사고가 나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 대법원에서 “도쿄전력” 경영진 모두 무죄판결 났다. 지진을 사람이 막을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배상 책임도 없다고 한다. 박형준 시장은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두고 미국은 80년, 100년도 쓴다고 말한다. 무책임한 발언이다. 사고가 나면 시민이 피해자이므로 결국 국민이 의사결정의 거버넌스를 가져야 한다. 중대재해법처럼 실제적인 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시켜야 한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후쿠시마의 오염은 점점 확산되고 있다. 녹아 내린 핵연료 잔해의 열을 식히기 위해, 지하에서

용출된 지하수로 냉각, 처리한 절반은 다핵종제거장치(ALPS)를 거쳐 저장탱크로 보내고 나머지는 원전으로 되돌린다. 이렇게 탱크에 쌓인 오염수가 130만 톤이다. 원자로 잔해를 제거하지 못하는 한 지하 오염수는 계속 발생하므로 일단 배출하면 수백 년 이상 오염은 계속 유발된다. 현재 후쿠시마, 아오모리 등 수입금지 된 지역의 수산물은 타 지역 대비 세습이 10배 이상 검출되고 있다. 결국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은 감당할 수 없는 인류의 무책임성을 상징한다.

원자력 비발전분야의 중요성

원자력의 발전분야는 2016년 매출 27조로 37,000명을 고용했지만 비발전분야는 고용효과가 훨씬 높아 16조 매출로 10만 명을 고용했다. 의료, 바이오, 첨단기술, 특히 IT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방사능 응용 분야는 넓다. 발전분야에 너무 치중하지만 비발전분야에서 유망한 것이 많다. 원전산업은 지속가능분야로 조속한 산업구조전환이 필요하다. 🌿



7월 11일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미사의 주제강의를 고은영 베로니카 정평위원이 요약하였습니다.

농아선교회 미사의 색다른 경험과 감사함

박상범 요셉 데레사여고 교목

얼마 전 농아선교회를 담당하던 신부님의 부탁으로 선교회 미사를 대신 집전하게 되었다. 처음 연락을 받았을 때, 나는 다른 본당 미사를 부탁받았던 것과는 달리 주저하였다. 농아 신자분들과 대면하며 미사를 집전해야 한다는 것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 미사를 부탁한 신부님은 그냥 미사를 집전하면 옆에서 수화 통역을 해주시는 분이 계시니 아무 걱정 없이 와도 된다고 하셨다. 그 말씀에 용기를 내어 승낙하였다. 하지만 주일 오전 농아선교회 건물에 들어서며 만난 그 순간 나는 실감할 수 있었다. 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분들과 그분들의 표현 방법인 수화에 대해 전혀 무지한 나 사이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이다. 잠시 머뭇거리고 있는 나를 보시고 한 봉사자분이 손동작을 통해 제의방에 인도해주시고 봉사자를 불러 주셨다. 농아선교회에서 일하시는 분을 통해 상세한 설명을 들음으로써 미사를 준비할 수 있었다.

11시 정각에 미사 시작종을 울리며 입당을 하는데 역시 여느 본당 미사와는 사뭇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봉사자 한 분이 성가를 부르는 동안 다른 회중들은 수화를 통해 성가를 노래하였다. 미사 독서와 복음을 비롯해 모든 기도문을 소리 내어 바치는 동시에 회중들은 수화로 응답하였다. 그러면서 미사에 집중하는 동안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영어 미사가 머릿속을 스쳐지나갔다. 영어로 미사 경문을 힘겹게 발음하지만 언어적 한계로 제대로 회중과 소통하지 못하는 모습이 수화 미사와 유사하게 다가왔다. 회중들과 단절된 채로 사제가 바쳐야 할 부분에 집중하였다.

회중과 함께하고 있는 미사임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부재한 아쉬움이 커져갔다.

‘언어적 한계란 참으로 무시할 수 없는 것이구나!’ 동시에 영어 미사를 봉헌하며 외국인 노동자목을 용이하게 해주시는 봉사자들에게 그리고 농아선교회에서 미사라도 봉헌할 수 있게끔 옆에서 힘이 되어주시는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사제로서 해야 할 직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봉사자 없이는 아무 것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하느님과 신자들을 연결시켜주는 중간 다리인 사제와 마찬가지로 사제와 회중들을 이어주는 봉사자들 역시도 또 다른 그리스도로 다가왔다. 하느님과 인간의 소통의 말씀인 로고스이신 예수님처럼 그분들 역시도 사제와 회중들 사이에 중요한 연결점인 것이다.

이처럼 교회는 사제만을 통해 복음적 활동을 완성하지 못한다. 교회는 사제의 개인적 역량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여 이루어 나가는 공동체임을 절실히 느낀다. 각자에게 주어진 능력을 자신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눔으로 풍성하게 하며 일치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교회임을 새로운 체험을 통해 깨닫는다. 🌿



당신께 지혜를 청하는 이들을 굶어보시어

『지혜로운 멧돼지가 되기 위한 지침서』(권정민 글·그림, 보림, 2016.)

김희영 세레나 천사네 청년분과

‘하루아침에 집이 없어져도 당황하지 않고 새 집을 찾아 나설 것.’

여기, 힘 있는 자들의 공격에 못 이겨 내쫓긴 신세의 어떤 가족이 있다. 절망에도 낙담 않고 스펀지처럼 태도로 나아가는 강인함까지 갖추었으니 고난에서 재기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대처도 익살스럽다. 살 곳을 찾아 떠도는 와중에도 ‘이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아닌 것에 감사할’ 줄 알며, ‘먹을 수 있을 때 충분히 먹어’두어야 할 때를 아는 슬기를 발휘하기도 하고, 뷔페식당 앞을 지나면서는 ‘너무 무리하지 말’라며 선을 지킬 줄도 안다. 몽둥이며 총을 들고 달려드는 인간 무리를 용케 피해 다니는 기술까지 제법이다.

이 가족의 정체가 멧돼지임이 뚜렷해질 즈음, 온갖 위협 속에도 굴하지 않고 가족을 지키려 애쓰는 여정이 펍 가볍지만은 않다.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지경으로 가는 현실이 비단 멧돼지에 국한한 이야기는 아니기에 팬스레 서늘해져서일까. 셋이나 되는 새끼들을 거느리고 삶을 지켜내려는 모험에 생동감 있는 그림이 더해져 흥미진진하지만, 집이 없어 헤매는 이가 어디 이들뿐이라.

높은 주거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청년들은 쪽방이나 고시원을 전전하고, 반지하와 노후주택에 살더라도 안전한 주거환경을 보장받을 수 없는 이들이 넘쳐난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이웃들 모습이 자꾸만 겹쳐 보이는 이유다. 그럼에도 지혜로운 대안과 지침을 강구하도록 공생을 제시하는 이런 서사가 있어 잠시 위안이 된다. 이야기 끝에는 멧돼지 가족이 인간들을 몰아내고 아파트에 자리를 잡는 상황으로 마무리된다.

아이러니한 결말처럼 상황을 전복시킬 순 없겠지만, 잠시나마 멧돼지 가족의 속을 들여다보려 애쓴 작가의 편에 서본다.

실제로 멧돼지의 도심 출몰이 잦아진 근본 원인은 먹이 부족뿐 아니라 서식지 감소 때문이라고 한다. 끝을 모르는 도시개발로 임야가 줄어들면서 동물들도 도시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현실에서 그저 멧돼지 사살만으로 상황을 일단락시키기에는 수많은 과제가 남는다. 현장에서 어느 한쪽을 제거하기보다 인간과 동물 모두를 위한 지침을 지혜롭게 설계하는 감각이 갖들길 바란다.

특별히, 올여름 기상이변과 자연재해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들의 허망함에 마음이 아프다. 가장 먼저 이들을 위로하실 주님께서 기꺼이 살기 좋은 곳을 내어 주실 거라 믿는다.

‘주님, 당신께서 거저 내어 주신 자리를 합당히 가꾸고 조화롭게 나누는 세상을 꿈꾸어 봅니다. 저희 모두가 돌아갈 집을 친히 허락해주소서. 또한, 얼마 전 내린 폭우로 침수 피해를 본 이웃들을 위로하시어 하루 빨리 일상을 회복하고 삶의 터전이 복구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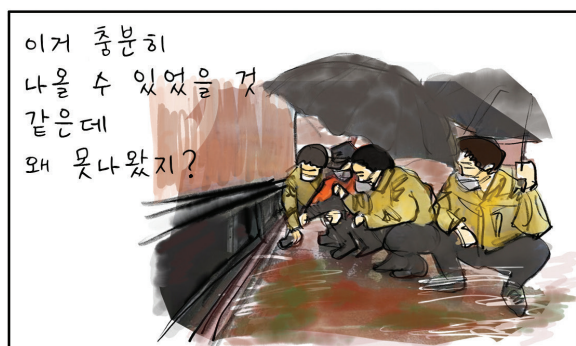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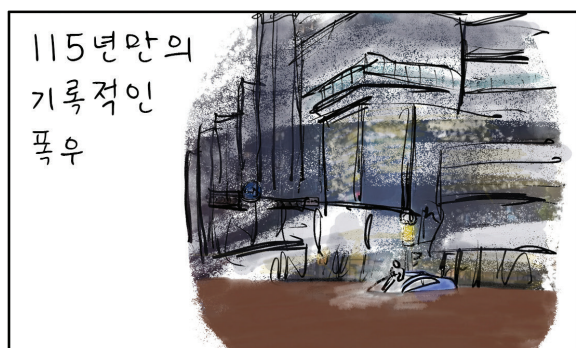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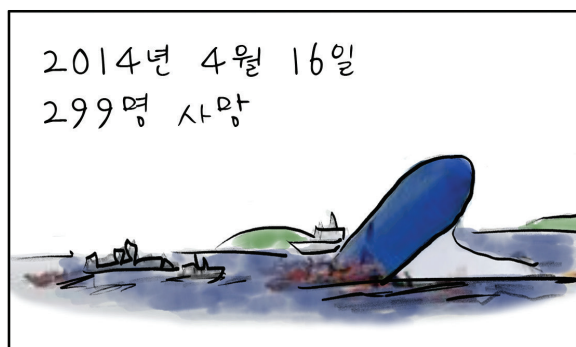
인간의 기본권인 주거권과 인간애 - 락탄티우스

김현 안셀모 신부 해양사목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며, 동시에 국가는 주택개발정책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헌법정신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를 지니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자본주의에 젖은 인간의 탐욕은 부동산 경제라는 거대 시장의 테두리 속에 인간의 기본권마저 장사거리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상품화된 인간의 기본권에 대해, 평신도 교부 락탄티우스(Lactantius, 250?-325)는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이 아니라 ‘인간애’(humanitas)를 지녀야 하고, 남도 나와 똑같은 인간임을 잊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남을 미워하거나 해를 끼치는 것은 아주 커다란 죄로 여겨야 합니다. ...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이라고 올바르게 불리기를 원한다면 인간애를 지녀야 합니다. 인간애를 지닌다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인간이듯 다른 사람도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락탄티우스, 『거룩한 가르침』 Divinae Institutiones 6,11.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담화 (2022년 9월 1일) (요약)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피조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는 올해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의 주제이자 초대입니다. 자연계 안의 하느님 현존에 주의를 기울이며, “우리가 다른 피조물들과 분리되어 있지 않고 우주의 다른 존재들과 더불어 커다란 우주적 친교를 이루고 있다는 사랑에 넘치는 인식”(『찬미받으소서』, 220항)을 우리 영성의 바탕으로 삼으라는 초대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위대한 대성전 안에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모두 함께 주님께 찬양의 노래를 바치는 수많은 피조물로 이루어진 “우주의 위대한 합창”을 즐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피조물이 내는 불협화음이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우리 창조주를 찬양하는 아름다운 노래,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 공동의 집에 대한 착취에 슬퍼하는 비통한 호소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누이이며 어머니인 지구가 울부짖습니다. “자의적인 인간 중심주의”(『찬미받으소서』, 68항)에 휘둘려 수많은 생물종이 멸종하고 있고, 그들의 찬양 노래가 들리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공동의 집의 훼손 상태는, 심각한 보건 위기와 전쟁과 같은 세계적 도전 과제들만큼이나 관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느님 작품을 지키는 이들로서 우리의 소명을 실천하는 것이 성덕 생활의 핵심이 됩니다. 이는 그리스도인 체험에서 선택적이거나 부차적인 측면이 아닙니다”(『찬미받으소서』, 217항). 21세기의 인류가 “자기의 막중한 책임을 기꺼이 떠맡았다고 기억되기를”(『찬미받으소서』, 165항) 희망합니다.

저는 최근 바티칸 시국의 이름으로 이를 대표하여 국

제연합 기후변화협약과 파리 협정에 가입할 권한을 교황청에 주었습니다. 기온 상승을 섭씨 1.5도로 제한하려는 파리 협정의 목표를 이루는 데에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가 차원의 더욱 원대하고 결단력 있는 노력을 요구합니다. 이는 피조물을 더욱 존중하고, 현재와 미래의 모든 민족이 온전한 인간 발전, 곧 책임감, 신중함, 예방, 연대, 가난한 이들과 미래 세대에 대한 관심을 기반으로 한 발전을 더욱 존중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두 결단력 있게 행동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한계점”(『찬미받으소서』, 61항)에 다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뻐하는 이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이들과 함께 울라’(로마 12,15 참조) 한 바오로 성인의 권고를 마음에 새겨 피조물의 비통한 호소에 우리도 함께 읊시다. 이 호소를 듣고 행동으로 응답하여 우리와 미래 세대들이 피조물이 부르는 희망과 생명의 아름다운 노래 안에서 계속해서 기뻐할 수 있게 합시다. 🌿

로마 성 요한 라테라노 대성전에서

2022년 7월 16일

카르멜산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

프란치스코



2022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장담화 [전문]



2022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교황담화 [전문]

정의평화위원회 활동과 소식

+ 7월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미사 (약칭: 아세미)

7월 11일(월요일 19:30 가톨릭센터 소극장) 아세미에는 30년간 핵발전(원전)에 대한 연구개발과 설계, 정비 등 전문가로 일하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원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는 이정운 임마누엘 대표(원자력 안전과 미래, 『원자력 묵시록』 저자)를 초대하여 강의와 미사를 봉헌하였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핵발전(원전)은 대안도, 지속가능한 사업도 아닙니다. 무엇보다 사용후핵연료, 핵폐기물, 가동 원전의 안전에 대한 대책마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강의요약은 4쪽, <아세미 이야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경찰국 신설 반대 부산지역 시민 사회 기자회견

7월 6일(수) 10:30, 독재시절로 회귀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반대 부산지역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부산시청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은 과가 87년 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열사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권력의 앞잡이, 몽둥이가 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91년 내무부 내 치안본부를 독립 외청으로 만든 것으로 87년 6월 항쟁의 결과물입니다. 이것을 되돌리고 검찰이 경찰권력까지 손에 쥐려하는 윤석열 정권의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주민투표 운동 행정소송 비용마련 후원의 밤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주민투표 추진위 주최, 주민투표 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소송 비용과 벌금 그리고 앞으로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투쟁을 이어가고자 투쟁기금 마련을 위한 후원의 밤이 7월 15일 수영 화목뷔페에서 열렸습니다. 안전한 부산을 시민과 미래세대에 돌려주기 위한 이번 행사에 부산지역 시민사회가 뜻을 모았습니다.

+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투쟁 연대미사와 희망버스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과 정당한 임금을 요구하는 파업을 하였습니다. 유죄판 부지회장의 옥쇄 투쟁 27일째인 8월 18일에는 천주교의 연대 미사를, 8월 23일은 부산에서 희망버스를 출발하였습니다. 30도가 넘는 폭염에 가로×세로×높이 1미터의 철장에 스스로를 가둔 노동자는 삭감된 임금의 원상복구를 요구하였습니다. 위험한 작업환경과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없는 저임금 노동은 생존을 위협합니다. 교회는 '가정을 유지하고 품위 있는 생활을 영위하기에 충분한 가족 임금을 가르칩니다.(간추린 사회 교리 250항)'



+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원인에 대한 심판

8월 25일(목)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원인 조사와 책임을 묻는 부산해양안전심판원(이하 부산해심원)의 심판이 5년반만에 진행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국민과 피해자 측이 직접 참여하여 진술하는 최초 해양심판입니다. 부산해심원은 엄정한 심판으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원인을 규명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없는 부산운동본부'와 대책위는 11시30분부터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해심원) 앞에서 선전전과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 2022 한일 탈핵 평화순례 및 간담회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생태환경위원회’와 ‘일본천주교주교회의의 정의평화협의회’가 주최하는 2022 한일 탈핵 평화순례에 다녀왔습니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에 따른 후쿠시마 핵발전소 방사능 누출 사고를 계기로 2012년에 시작하여, 한국과 일본에서 한 해씩 개최되는 ‘한일 탈핵 평화순례 및 간담회(8월 28일-31일)’의 이번 주제는 ‘기후위기의 해결책이 아닌 핵발전’이었습니다. 정평위는 8월 29일 하루 일정으로 고리2호기 수명연장 반대를 위한 고리핵발전소, 경주 월성 핵발전소 인근 나아리주민과 활동가 간담회, 문무대왕과학연구소 건설현장 등을 순례하였습니다.



+ 미얀마 민중과 연대하는 릴레이 캠페인

미얀마 군부가 7월 23일, 반체제 인사 4명에 대하여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킨지 1년반 동안 적법한 절차 없는 살해와 고문,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8월 21일(일) 11:00, 미얀마에 민주주의를! 미얀마 민중과 연대하는 80차 릴레이캠페인 피켓팅을 부산역광장에서 진행하였습니다. 9/4(일) 매달 첫 주일에는 집중집회를 진행합니다.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은 미사와 기도도 기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사드 뺀다 평화 심자!

한반도 평화 소성리 미사

- ▶ 일시: 2022년 9월 5일(월) 14시 (10:00-18:30)
- ▶ 출발: 사상기차역 앞 공터 9:50 까지 집결
- ▶ 준비물: 점심도시락, 물, 간식
(또는 점심 한식도시락 신청: 1만원)
- ▶ 신청마감: 8월 31일까지

전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051-465-9508)

후원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 6월16일~8월16일)

가톨릭센터 강운자(2) 강인순(2) 강정웅신부(2) 고은영
(2) 권성일 권용대(2) 권중희(3) 김광숙(2) 김경란(2) 김
경석(2) 김경숙(2) 김선영(2) 김인한신부(2) 김종경(2) 김
진호신부(2) 김홍기(2) 나경문(2) 류창훈신부(2) 류형숙
(2) 맹정은(2) 박위옥(2) 박정학(2) 박종민신부(2) 배미
희(2) 법무법인민심(2) 법무법인부산(2) 변지혜(2) 서경
혜(2) 손석호(2) 송석희(2) 신정금 심서경 심재영(2) 아
리(2) 우무섭(2) 유상우신부(2) 유소정 유한이(2) 윤영훈
(2) 윤용웅(2) 이미영(2) 이봉룡(2) 이성애(2) 이소라(2)
이영복(2) 이우형(2) 이윤호(3) 이정기(2) 이형규신부(2)
장원창(2) 장은경 전나미(2) 전동묵신부(2) 전윤희(2) 전
태일(2) 정성호신부(2) 정종태(2) 정호신부(2) 조계환(2)
조동기(2) 조동성신부(2) 조영심(2) 주님의축복을(2) 차
광준신부(2) 최우인(2) 최재경(2) 최혁신부(2) 최현욱신
부(2) 하민진(2) 하희설 허재현(2) 황수엽(2) 황진(2) 익
명(2) **원고 후원** 고은영 김아영 김현신부 마리아의전
교자프란치스코수녀회 박힘찬신부 임수진 정부원신부

정의평화위원회를 후원(자동이체 신청)해주십시오.

정의평화위원회 후원계좌

- 농협 301-0465-9508-21 (천주교부산교구유지재단 정평위)
- 부산은행 113-2000-8639-05

>> 보내주신 후원금은 정의평화위원회의 소중한 사업비로 사용됩니다.

>> 후원인 가운데 연락처나 주소가 변경된 분은 정의평화위원회 사무국으로 연락해주십시오. ☎ 051-465-9508

2022년 9월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미사

난민 등의 국제적 보호와 권리 보장



이탁건 테오도르 변호사
유엔난민기구 법무담당관

2022.09.19(월)
가톨릭센터 소극장

문의 : 051-465-9508



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전화 051-465-9508 주소 48968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71 가톨릭센터 5층

이메일 busanjustice@naver.com 홈페이지 busanjustice.pbcbs.co.kr